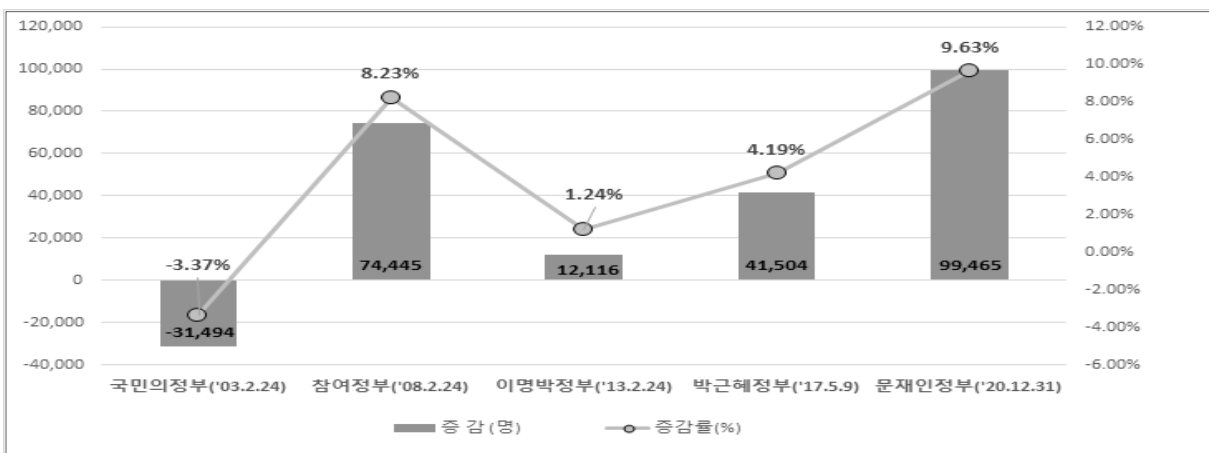


- 문재인 정부 들어 '철밥통' 공무원 수 10만 명 가까이 증가
 - 작년 말 공무원 수는 1,131,796명, 박근혜 정부 말 대비 99,465명(9.6%) 증가
 - 이전 4개 정부기간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합계(96,571명)를 상회
 - '공무원 17.4만 명 증원' 공약을 고려하면 문 정부 임기 내 공무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
- 두고두고 막대한 국민세금 부담 초래...17.4만 명 증원 시 2023년부터 30년간 약 424조원
 - (가정 1) 2021년(36,535명), 2022년(38,000명)으로 증원해 총 17.4만 명 공약 이행
 - (가정 2) 2023년부터 30년간 복무
 - (가정 3)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연간 약 4천683만 원(2018년)
 - ※ 2017년 추가 채용 국가직 공무원 2,575명의 5년 비용 5684억 원, 2018년 신규 채용 국가직 공무원 12,221명의 6개월 비용 3026억 원 등을 준용 (자료: 기획재정부)
 - (가정 4) 인건비 증가율 3%로 가정, 승진 등은 고려치 않음
-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30년간 327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음
- 더 큰 문제는 첩첩규제를 양산해 민간부문의 활력 저하시키는 필연적 결과
 - 이미 과도한 국가부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미래세대에게 이중고가 될 것임
 - ※ '파킨슨 법칙'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스스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민간에 규제와 간섭을 늘림
- 공무원 증원 중단하고 공무원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구조조정이 시급

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 10만 명 가까이 증가

단위: 명, 이전 정부 말 대비 %



자료: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<https://www.org.go.kr/>

막대한 국민세금 부담... 2023~2052년 30년간 총 약 450조 원

	A. 문(文)정부 공무원 증원	B. 1인당 비용(매년 3%인상)	C. 총비용 = A x B
2023년	2017~2020년 99,465명 + 2021~2022년 74,535명(가정) = 174,000명	2018년 4,683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3%인상, 2023년에는 5,429만원	9.4조원
2024년	174,000명	2024년 5.592만원	2024년 9.7조원
·		·	·
·		·	·
·		·	·
2052년		2052년 12,795만원	2052년 22.3조원
합계			449.5조원

주: 연구자 자체 계산